

“전남 주요 도로망 내년에도 짙게 뻗는다”...사업비 613억 증가

도로 분야 국비 4827억 반영, 차질없는 사업추진 가능

“반영 못한 사업,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전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위한 연륙·연도교를 비롯한 주요 도로망 공사가 순항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긴급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 내년에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지역 도로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613억원(14.5%) 늘어난 4827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3318억원이 편성됐지만 전남도가 사업

의 당위성 등을 기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기존 부처 안보다 1509억원(45.5%)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공사는 1028억원이 반영돼 2026년 완공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또 2단계(강진~완도) 구간도 지난달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1단계 준공 이전에 연이어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연륙·연도교와 주요 간선도로망은 12건,

3749억원이 확보됐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모두 연결하기 위한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1054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535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400억원) 건설’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돼 적기 완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로망과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향후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광주 하남에서 장성 삼계를 잇는 광역도로 사업비 50억원도 반영돼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교통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정부 긴급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반영돼야 할 사업이 있다”며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부채재본부 김승호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2023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DENOVATION’ 등 출전 2개 팀 모두 수상 R&D·현장개선 분야서 혁신사례 인정받아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신현대 사장)이 ‘산업계 전국체전’이라 불리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출전팀이 모두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제49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한 2개 팀이 모두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

다.

전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주관한 이번 대회는 ‘품질혁신으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선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앞서 시도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전국 273개 팀 2500여 명의 분임원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달 31일 선체설계부 ‘DENOVATION’ 품질분임조가 R&D 분야에서 ‘화물창 구조 최적화 VLCC 개발’을 주제로 발표해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자동화혁신센터의 ‘가은누리’ 품질분임조가 현장개선 분야에서 ‘LNG 탱크 브레인 시트 용접방법 개선으로 작업시간 단축’을 주제로 발표해 역시 금상을 받았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항상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며 현장에서의 실속 있는 개선 사례 발굴에 열과 성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현장 개선을 통해 전국에서 인정받는 제조 혁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영남·조대호 기자

전남도, 청년정책 싱크탱크 제6기 ‘청년의 목소리’ 출범

전남도는 최근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6기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의 목소리’는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단체, 농어업인,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 청년 51명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제6기 대표로 선출된 문준원 씨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형 청년친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제6기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간담회, 워크숍 개최 및 전남 청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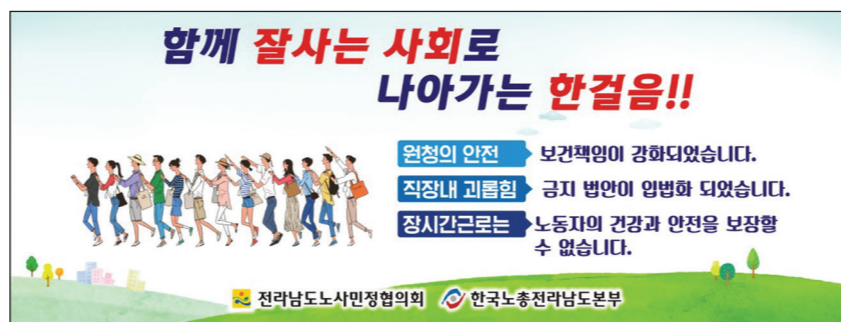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중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채재본부 김승호 기자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신원1호 태양광발전소	박선하	99.56	(1,211㎡/14,600㎡)
2 신원2호 태양광발전소	최지영	99.56	(1,233㎡/14,600㎡)
3 신원3호 태양광발전소	김가윤	99.56	(1,988㎡/14,600㎡)
4 신원4호 태양광발전소	이준숙	99.56	(778㎡/14,600㎡)
5 신원5호 태양광발전소	박영실	99.56	(778㎡/14,600㎡)
6 신원6호 태양광발전소	박정애	99.56	(778㎡/14,600㎡)
7 신원7호 태양광발전소	박정미	99.56	(778㎡/14,600㎡)
8 신원8호 태양광발전소	최현주	99.56	(778㎡/14,600㎡)
9 신원9호 태양광발전소	최고은	99.56	(846㎡/14,600㎡)
10 신원10호 태양광발전소	손영희	99.56	(830㎡/14,600㎡)
11 신원11호 태양광발전소	류기진	99.56	(814㎡/14,600㎡)
12 신원12호 태양광발전소	남현두	99.56	(798㎡/14,600㎡)
13 신원13호 태양광발전소	㈜일양에너지이원	99.56	(1,103㎡/14,600㎡)
14 신원14호 태양광발전소	㈜윤에너지	99.56	(1,887㎡/14,600㎡)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내정1호 태양광발전소	정성용	99.56	(1,116㎡/21,731㎡)
2 내정2호 태양광발전소	이박균	99.56	(866㎡/21,731㎡)
3 내정3호 태양광발전소	이박균	99.56	(798㎡/21,731㎡)
4 내정4호 태양광발전소	전미숙	99.56	(786㎡/21,731㎡)
5 내정5호 태양광발전소	이동조	99.56	(856㎡/21,731㎡)
6 내정6호 태양광발전소	이윤주	99.56	내정리 8-33 (848㎡/21,731㎡)
7 내정7호 태양광발전소	양송이	99.56	8-34 (878㎡/21,731㎡)
8 내정8호 태양광발전소	김광호	99.56	8-37 (960㎡/21,731㎡)
9 내정9호 태양광발전소	임기영	99.56	172-1 (1,178㎡/21,731㎡)
10 내정10호 태양광발전소	현명남	99.56	172-3 (1,059㎡/21,731㎡)
11 내정11호 태양광발전소	전옥자	99.56	172-8 (8월지) (924㎡/21,731㎡)
12 내정12호 태양광발전소	양누리	99.56	18개소 (803㎡/21,731㎡)
13 내정13호 태양광발전소	박영심,마봉덕	99.56	(836㎡/21,731㎡)
14 내정14호 태양광발전소	김영희	99.56	(861㎡/21,731㎡)
15 내정15호 태양광발전소	강성원	99.56	(958㎡/21,731㎡)
16 내정16호 태양광발전소	김옥희	99.56	(1,009㎡/21,731㎡)
17 내정17호 태양광발전소	황혜숙	99.56	(1,017㎡/21,731㎡)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